

소공동체 모임 길잡이
2023 02 제169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천주교마산교구사목국



소공동체 모임 순서

소공동체 봉사자는 모임 순서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다.
소공동체 모임 시작 전에 매월 둘째 혹은 셋째 주일의 복음나누기 중에서 미리 선택한다.

1. 시작성가

▶ 소공동체에서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시작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성호경 / 오늘 모임을 시작하면서,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2. 인사 나누기

▶ 전입자나 처음 나오신 분 또는 특별참석자가 있는 경우에 소개한다.
| 진행 | : 각자 소개하면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3. 전 모임 기록 낭독

| 진행 | : 지난번 반회의록을 낭독해 주십시오.

4.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

▶ 소공동체가 선택한 주일의 '길잡이에 의한 복음나누기'에 따라 진행한다.
| 진행 | : 길잡이에서()주일의 복음나누기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1] 주님초대하기

[2] 하느님 말씀

- 1) 복음말씀을 읽는다.
- 2) 침묵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다.
- 3) 마음 안에 들려 온 말씀을 나눈다.

[3] 한 걸음 더 나아가기

[4] 생명의 말씀 정하기

[5] 말씀 살기

- 1) 지난 달 실천사항 나눔
- 2) 이번 달 실천사항 논의

[6] 마침기도

5. 궁금했어요『소공동체 다시 배우기』

| 진행 | : '궁금했어요' 부분을 펴 주십시오. (모두 펴면)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6. 기타토의 및 공지사항

| 진행 | : 우리 소공동체에서 본당에 건의하거나 기타토의 할 사항을 나누겠습니다.
| 진행 | : 본당 공지사항과 구역·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7. 차기 모임장소와 날짜 정하기

▶ 다음 모임의 장소를 제공할 세대와 날짜를 정하고 기록한다.
| 진행 | : 차기 모임 장소와 날짜를 정하겠습니다.

8. 소공동체를 위한 기도

| 진행 | : 본당 소공동체를 위하여 다함께 '소공동체 기도문'을 바치겠습니다.

9. 마침성가

▶ 반장은 선택한 주일의 복음나누기에 있는 마침성가를 안내한다.
| 진행 | :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가()번()절을 노래하겠습니다. / 성호경



연중 제6주일(2월 12일)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과 달리,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마태 5,17-37)



귀한 예물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마태 5,23-24)

화해와 용서는 작은 죽음입니다. 이를 외면하면 고통을 늘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를 벗어나 화해와 용서를 감행할 때, 우리는 참된 기쁨을 체험하게 되고 하느님은 그들을 귀한 예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2. 16.)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3번 “온 세상 다스리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당신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보살펴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5장 1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17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18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율법에서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19 그러므로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 나라에서 큰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다. 20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21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 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23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25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열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네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2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네가 마지막 한 닢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27 ‘간



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28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 29 네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30 또 네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 버려라.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지체 하나를 잃는 것이 낫다. 31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 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3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자는 누구나 그 여자가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다. 또 버림받은 여자와 혼인하는 자도 간음하는 것이다. 33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네가 맹세한 대로 주님께 해드려라.’ 하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또 들었다. 3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마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하나님의 옥좌이기 때문이다. 35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그분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위대하신 임금님의 도성이기 때문이다. 36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네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회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37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마태 5,17)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나는 주위 이웃들에게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 그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 5,37)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말과, 내가 전해야 할 말 중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웃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우리는 복음을 통해 “너희는 말할 때에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여라.”(마태 5, 37)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단순한 가르침 앞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을 다시 벗게 됩니다. 관계 속에서 자주 걸려 넘어지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예수님은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함으로 풀게 되는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가르쳐 주시고, 관계의 참된 모습을 되찾아주시며, 우리가 살아나야 할 지혜를 가르쳐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예’와 ‘아니요’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의 분명한 실천이 성숙한 삶의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꽃피울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봅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3번 “온 세상 다스리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연중 제7주일(2월 19일)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마태 5,38-48)



우리가 살아가는 기쁨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러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마태 5,41-42)

우리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둘러보면 나를 필요로 하는 이웃이 보입니다. 그들을 위해 나를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는 이웃을 위해, 또 나를 위해서 즐거움과 행복의 날개를 달아주십니다.

그림 김옥순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출처: 서울주보, 2014. 2. 23.)

시작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 진행자 |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어 당신 말씀 안에 머물게 하시고,
언제나 저희를 보살펴주소서.
- 주님, 제 마음이 당신을 향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 진행자 | : 한 분이 마태오 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38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39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오히려 누가 네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 대어라. 40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41 누가 너에게 천 걸음을 가자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이천 걸음을 가 주어라. 42 달라는 자에게 주고 꾸러는 자를 물리치지 마라. 43 ‘네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네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 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44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45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그분께서는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당신의 해가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이에게나 불의한 이에게나 비를 내려 주신다. 46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



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47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진행자 |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 진행자 |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마태 5,44)

나는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마태 5,48)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나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함께 고민하고 우리들의 일상을 이야기 해 봅시다.

| 진행자 |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 진행자 |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 오늘 마태오 복음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 앞에서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삶은 인간을 향한 사랑의 삶이었고, 참된 사랑의 완성을 몸소 보여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느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이 하고, 폭력을 감싸 안으며,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세상의 악과 폭력을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을 선택하고, 내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고, 완전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지금부터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 진행자 |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말씀 살기

| 진행자 | :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 진행자 | :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마침기도

| 진행자 |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 진행자 | : 가톨릭 성가 29번 “주 예수 따르기로”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변경하는 소공동체

진주1지역 옥봉동성당 1구역 구역장 윤정자(헬레나)

100주년을 준비하는 옥봉동 본당은 진주지구 모태성당이면서 등록문화재 제154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당 입구로 들어서면 제일 먼저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하시며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우리를 맞으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름답고 큰 느티나무는 우리 본당의 세월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잔디밭 야외 제대 뒤 성모 동산에는 고개를 숙이고 계신 겸손의 성모님이 계시고 계절 따라 예쁘게 피는 꽃들은 아름답기 그지없습니다.

올해 부임하신 박철현 미카엘 신부님은 언제나 일찍 나오셔서 교우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본당 수녀님이신 박 데레사 수녀님은 어머니 같은 자상함으로 신자들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세월 이기는 장사가 없다는 말처럼 오래된 성당이다 보니 돌아가신 교우들의 빈자리와 거동이 불편한 교우들의 빈자리

가 늘어나면서, 예전에 활발하게 활동했던 단체들도 규모가 작아져 합치거나 해체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많은 단체가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우리 소공동체 모임도 주춤할 수 밖에 없었고, 이를 고려한 본당 신부님께서 가정에서 하던 모임을 성당으로 옮겨서라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7개 구역 31개 반이었던 것이 그 규모가 줄어 현재는 5구역 7개 반이 되었고, 소공동체 모임도 반별로 하던 것을 구역별로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희가 맡은 1구역은 3반까지 있는데, 둘째 화요일 11시에 성당에서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 구역은 누구보다 내 주위를 잘 돌아보고 가까이 있는 교우들의 대소사를 챙기고, 또 쉬는 교우를 찾아보는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을 반에서 그치지 않고, 구역 내 나눔을 함으로써 내가 속한 반·구역뿐만 아니라, 본당까지 나아가 범위를 넓혀 교우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하는 교우들이 부담 없이 모임에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면서 우리의 도움이신 성모님께 이 글을 바칩니다.



「성사가 구원에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성사들이 각 개인 신자에게 모두 주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위하여 필요하다. 성사는 성사 은총을 부여하고, 죄를 용서하며,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며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한다. 성령께서는 성사를 받은 이들을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신다.

해설

“성사 생활의 효과는 인간을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성령께서 신자들을 외아들이신 구세주와 근본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다.”(1129항). 성사를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 하느님과 친교를 누리게 된다. 구원은 다름 아닌 삼위일체 하느님과 사랑으로 하나 됨이다. 성사는 ① 성사의 은총을 부여하고, ② 죄를 용서하며, ③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④ 그리스도와 결합시키며, ⑤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한다. 그러므로 일곱 성사 모두 구원에 필요하다.

「성사 은총은 무엇인가?」

성사 은총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총이며, 각 성사에 고유한 것이다. 성사 은총은 신자들이 성덕의 여정을 걷도록 도와주고, 교회가 사랑과 증거의 사명에서 성장하도록 돕는다.

해설

성사의 은총 또는 성사 은총은 각 성사에 고유하게 내려지는 은총이다. 예를 들어 세례성사에서 주어지는 은총은 세례의 성사 은총이고, 견진성사에서 주어지는 은총은 견진의 성사 은총이다.

용어

성사 은총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총이며, 각 성사마다 고유한 은총을 베풀어 준다(1129항). 각 성사의 은총, 곧 세례성사의 은총, 견진성사의 은총, 성체성사의 은총, 고해성사의 은총, 병자성사의 은총, 성품성사의 은총, 혼인성사의 은총은 각 성사를 다룰 때 설명할 것이다.

*한남성서연구소에서 출판한 (말씀으로 익히는 가톨릭 교회 교리 문답)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소공동체 모임 기도문

주님!

성자께서 당신 이름으로 모인 사람 가운데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사오니,
성령의 빛으로
오늘 모인 저희로 하여금
진리와 사랑으로
저희 마음에 은총과 자비와 평화를
풍부히 내려 주심을 체험하게 하소서.

완전한 일치이시며,
참된 사랑이신 주님!
오늘 이 소공동체 모임을 통하여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당신의 위대한 희생을 본받으며
당신의 자녀들로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향구한 일치로 굳세어지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서로 형제 된 기쁨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친교를 이루며
이웃에 봉사함으로써
당신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저희 안에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